

TV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and 1-12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table listing various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주원 "배우를 향한 꿈 이뤄진 것 같아요"

KBS 연기신인상 수상에 이어 '각시탈' 주인공까지

'제빵왕 김탁구'의 구마준이 비뚤어진 재벌 2세였다면 '오작교 형제들'의 황태희는 까칠하지만 믿음직하고 건실한 형사다.

주원(사진)은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인복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작품 운도 좋았고, 무엇보다 함께 연기하는 동료 배우와 스태프의 조합이 계속해서 환상적이었어요."

그는 지난 연말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신인연기상을 차지했다. 여세를 몰아 대작의 주인공까지 꿰찼다. 오는 5월 방송되는 KBS 2TV 100억 대작 '각시탈'의 타이틀 롤이다.

"과분하죠. 너무 행복하고요. 부담도 크지만 내가 뭔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도 선배들처럼 좋은 연기를 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원은 지난 2년 거침없이 질주 중인 그를 최근 을지로에서 만났다.

드라마 사이사이 영화 '특수분'과 '미확인 동영상'에도 출연하는 등 쑥쑥 성장하는 것도 눈길을 끌지만 주원은 특히 요즘 '오작교 형제들'에서 유이와 함께 '태자 커플'로 시청자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그가 맡은 태자와 유이가 연기하는 자은의 이름을 딴 '태자 커플'은 알콩달콩한 러브 스토리로 주말 안방극장을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예쁜 장면을 많이 찍어서 행복해요.(웃음) 현실에서는 잘 해보지 못하는 에피소드가 많이 그려져 좋고요. 실전에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실제로는 제가 그렇게 알콩달콩한 사랑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 드라마를 통해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마지막 날 열린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아 웃음을 토해냈다.

"제게는 꿈의 무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를 꿈꿨고 노력해오면서 나도 시상



식에서 인젠가는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이뤄진 거 같아요. 너무 벅차올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방송 데뷔 전 공연 무대에 섰던 일들이 필름처럼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감격에 겨워 그 순간 해야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웃음) 개인예고를 거쳐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에 입학한 그는 학교 무대와 뮤지컬 무대에서 기초 체력을 다졌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9일(음 12월 16일) 운세. Includes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신비림 애동제자. 밝은영으로 신령님의 영검하심을 시원하게 전해드립니다. 010.5523.0510

굿모닝 잉글리쉬. I just want to be happy. 저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Includes English learning content and contact info.

니하오 쑹구위. 剩女 shèngnǚ. 남겨진 여자. Includes Chinese language learning content and contact info.

오하오우 니혼고. 書き直します。 다시 쓰겠습니다. Includes Japanese language learning content and contact info.